

농어촌공사 청양,신활력플러스사업 세부설계 착수보고회

윤 최형순 기자 | ⌚ 승인 2021.10.07 15:28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과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지사장 김남표)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H2O센터 세부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6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지난 6일, 신활력플러스사업 세부설계 착수보고회 개최 모습

이날 행사에는 김돈곤 군수를 비롯해 나인찬군의원, 김종관 군의원, 신활력플러스사업단 및 민간전문가 등 20여명이 코로나방역을 준수하고 참석하였다. H2O센터는 고추문화마을 내 고추박물관을 리모델링하여 유희시설물을 활성화하는 계획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육성한 다양한 조직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청양군내 액션그룹이라는 다양한 경제 및 공동체 조직을 발굴하여 청년스타트업 양성과정으로 멘토멘티 스쿨,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액션그룹

성장학교를 통해 각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스스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양지역의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 신활력플러스사업 세부설계 착수보고회 개최 모습

김남표 청양지사는 '청양군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육성된 조직이 청양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H2O센터가 그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형순 기자



HOME > 정치/지방자치

고추박물관 활용 H2O센터 조성 착수보고

윤 이동연 기자 | 승인 2021.10.12 11:26 | ☎ 호수 1414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전면부 유리건물 증축 논의

청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H2O센터 조성(고추박물관 리모델링)을 위한 착수보고회가 지난 6일 개최됐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고추박물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 일정 및 설계 기본 방향 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시설 현장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이며 한국농어촌공사청양지사 위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4월 28일 기본계획을 승인, 2021년 5월 20일 공공건축 심의 완료, 9월 7일 세부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 들어간다.

고추박물관은 연면적 1274㎡, 건축면적 792㎡로 지상2층과 지하1층의 문화집회시설이다. 현재 전시실은 공실로 콘텐츠 및 흥미유발 요소 부족 등의 상태로 방치돼있다.

군은 이 공간을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조성사업을 통해 H2O센터 외 건축물과 야외공간을 통일된 디자인과 가변성 있는 오픈 공간으로 재조성할 예정이다.

용역사는 기존 건물을 개보수해 1층에는 농부의 식탁, 농부의 시장, 액션그룹 성장학교를, 2층은 신활력추진단 사무실, 회의실, 야외식당, LAB(연구실)실을, 3층에는 옥외 쉼터 및 조경, 태양광 패널 설치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면부에는 310㎡규모로 유리(파사드) 건물을 증축해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크리에이티브존(창의존)과 커뮤니티센터를 배치, 역동적인 공간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액션그룹을 위한 LAB실 증설, 유리 건물 설치 효과, 공간 구성 및 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용역사는 올해 12월까지 조율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3월까지 최종도면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연 기자